

# 바른불교모임 “해인사 사태는 공업”

5일 해인사 방장 스님에게 정상화 요청문 전달

## 주지 직대에 학성 스님 임명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중, 이하 바른불교)가 7월 5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해인총림 정상화를 촉구하는 요청문을 전달했다.

바른불교는 이날 요청문 전달에 앞서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인사는 성철 스님의 엄격한 수행 가풍에 근거한 선 수행의 상징이며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라며 “최근 방장 선출과정의 불미스러운 선거로 치러졌고, 이 과정에 돈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법보종찰 해인사 뿐만 아닌 사부대중 모두의 막대한 죄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보종찰 해인사”가 세상으로부터

터 ‘방장 주지 직인을 탐하는 탐욕종찰 직인사’라는 비웃음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인사 사부대중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린다”며 “어서 빨리 자와 포살로 해인총림의 혼란스런 상황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학성 스님(만불회 회주)을 해인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6월 17일부터 주지직무대행을 맡았던 헤일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관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어 중무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주지직무대행 임기는 3개월로 임기 중 차기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

한편, 만불회는 7월 2일 총무원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다. **노덕현 기자**



우희중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가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정상화 촉구 요청문을 전달하고 있다.

# 선학원 “현 집행부와 대화할 수 없다”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과의 거절

선학원이 조계종 측이 제의한 대화를 거절했다. 선학원은 7월 3일 조계종 총무원 측에 자승 스님이 제안한 ‘선학원 이사 초청 간담회’ 회신 공문을 보내 “법인관리법과 종헌 9조 3항에 대해 대화를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학원 측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선학원과 조계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인식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이미 별다른 시켜놓고 조계종도로 자격을 상실했는데, 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학원 측은 “총무원장 스님이 2014년 10월 23일 ‘선학원과의 관계는 끝난 사안’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포 교육원장 현용 스님이 2014년 11월 5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열린 16대 중앙총회 불교광장 워크

숍에서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선학원을 겨냥해 만든 법’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선학원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학원도 제도에 대한 교육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이번 대화제의의 본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집행부가 들어서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학원의 대화제의 거절로 인해 법인관리법 유효조치가 끝나는 7월 31일까지의 조계종 측 대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학원은 지난 4월 조계종과 별도로 구축계 수계산림을 연대 이어 올 해 하반기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을 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조직적’ 해외포교 나섰다

포교원, 6월 20일~7월 6일 미주전법순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미동부해의 특별교구 내 사찰 간 자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포교원과 교구 간 연계를 통해 조직적·세계적 포교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6월 20일부터 7월 6일 까지 미국·캐나다 지역 전법순례를 다녀왔다. 포교원은 이번 순례를 통해 신도층 고령화, 어린이 포교 침체 등 해외지역 포교 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전법네트워크 확립에 나선다.

포교원은 “이번 순례를 통해 해외 신도층 고령화와 어린이 포교 침체 등 여러 문제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위해 “국내 포교 프로그램 전수 및 어린이·청소년 불교지도자 양성, 미동부교구어린이 불교캠프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 밝혔다.

재는 많이 미비하다. 국내 포교사 양성 시스템을 현지에 맞게 도입해 역량 증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디지털대학교육 서버 개설은 해외 신도들도 인터넷을 통해 종단 포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화에 발맞춘 디지털 신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해외 신도들에게도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전법단, 미동부해의특별교구로 구성된 ‘해외포교네트워크구축 전법순례단’은 6월 20일~7월 6일 미국, 캐나다 지역 순례를 진행했다.

## 신도 고령화 등 포교 문제 파악 포교사 역할 중요... 양성 집중 디지털 대학통한 신도교육 추진 미 어린이 불교 캠프 등 계획도

국내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어 미국은 사찰이 종교법인법을 통해 설립되기 때문에 사찰별 연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정도 교구 사찰 스님들이 포교 방안을 의논 및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스님들 간 유대감을 조성해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미동부전법순례를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도 및 사찰 스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지 포교 현황과 애로 사항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해외포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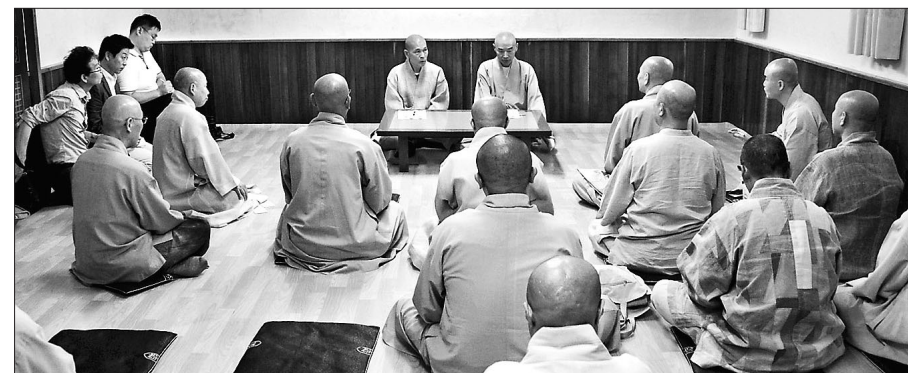
한편 이번 순례단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국제전법단 사무처장 정범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 포교원 박성수 전법팀장 등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미국 시카고 불타사·뉴욕 불광선원·보스턴 문수사와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밴쿠버 서광사·캘거리 서미사 등을 순회하며 스미주 지역 사찰 간담회 개최, 스 국제전법단 지도법사 위촉, 스 해외포교 우수사찰 감사패 전달 등을 진행했다.

한편, 포교원 순례단은 시카고 불타사 현성 스님, 뉴욕 불광선원 휘광 스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불타사 주지 성향 스님과 불광선원 총무국장 문종 스님을 국제전법단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박익민 기자 pak502482@hyunbul.com**

# “개혁 정신 후퇴 용납할 수 없다”

의현 스님 감형 논란 출제가 비판의 목소리 특별법 제정 촉구도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7월 8일 장성 백양사 인근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의현 스님 재심 결정 전면 무효화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현 스님 판결에 대한 출제가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에 대한 조계종 재심위원회의 공권 정지 3년 판결을 두고 출제가 단체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개혁을 주도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중앙총무기관 재가 총무원들까지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는 7월 8일 장성 백양사 인근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 전면 무효화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를 위해 다른 불교계 단체들과도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과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상임대표 퇴후 스님을 비롯해 20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오후 6시 30분 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종헌중법을 수호

하지 못한 점과 94년 종단개혁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한 참회 △의현 前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 전면 무효화 △재심위원회의 자광 스님과 재심회계 위원 참여 및 전원사퇴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징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94년 종단개혁 계승하는 출제가 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미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재가단체들이 구성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측과의 연대 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재가단체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14개 재가단체로 구성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이하 비대위)가 7월 9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비대위는 의현 스님에 대한 복권 반대를 명확히 밝히고 조계종 집행부의 복권절차 진행 중단 및 중앙총회의 재심회계위원 불신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의현 스님에 대한 교단의 엄벌은 다시금 어용불교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물질만능주의의 세속화 물질

속에 투명한 교단을 만들자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종단 사상 이렇게 많은 대중의 공의가 모여 엄벌을 결의한 사례는 없었음에도 재심회계원은 아무런 대중공의의 수렴 없이 밀실에서 복권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94년 개혁정신과 대중공의, 조계종 종헌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재심회계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중앙총회는 재심회계위원들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함도 재심회계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조함도는 7월 8일 성명을 통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회계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승려대회와 개혁회의의 정신을 고려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 조함도는 토론회를 열고 판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7월 7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지원)에 재심회계위원의 의현 스님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심판 결과에 따른 행정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7월 29일 불광사에서 열리는 제5차 대중공사에서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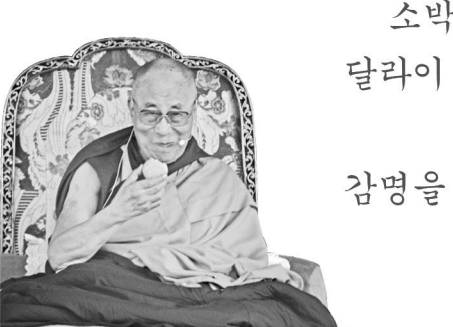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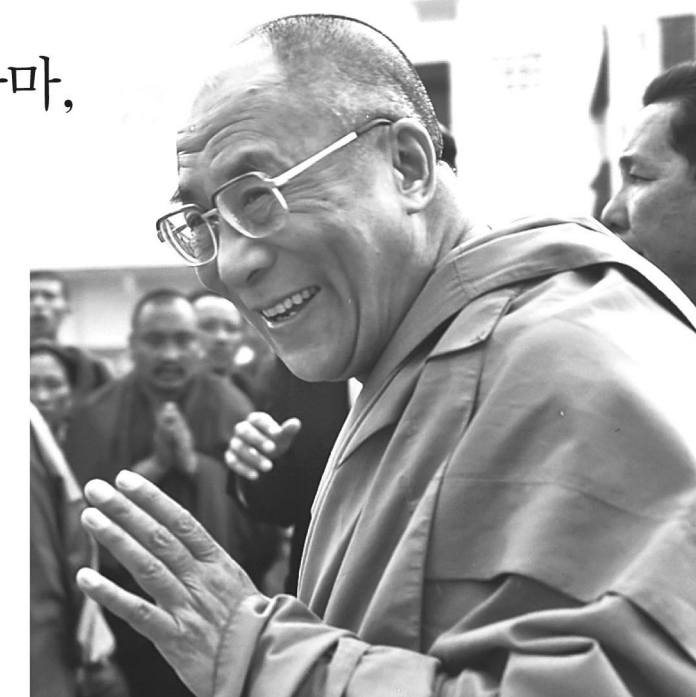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